

2011년 가을  
한예종 전문사 수업

## 아방가르드의 딜레마와 작가 육성: 작가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현대예술의 쟁점들

수업 목적:

두가지 입장에 근거한다. 첫 번째로 작가 지원프로그램은 결국 19세기 중반부터 등장한 서구의 아방가르드 예술, 그리고 20세기 초에 한국에 도입된 순수 예술의 개념을 지탱하는 주요한 개념적, 사회적, 경제적 필수조건임을 이해하고 현대예술의 발전의 단계에서 각종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 수행한 역할과 쟁점 위주로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확장된 정의를 살피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수업은 한국에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매우 급격하게 생겨난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역사와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각종 형태가 서구에서 유래하였지만 비교적 순수예술에 대한 사회적인 기반이 약한 소위 비서구권 미술계에서 작가 지원프로그램은 서구권의 작가 지원프로그램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서구권에서 발생한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한 유형으로서 한국 작가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번 수업에서는 예술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과 현대예술의 발전, 작가의 다양한 공동체의 발전, 작가 교육, 비서구권 현대예술의 발전을 위한 기반, 국제화시대와 작가 지원 프로그램과의 역할에 대한 쟁점들이 다루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읽기와 함께 유형 연구(case study)를 통하여 스스로 다양한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형태와 역할에 따라 평가하고 분류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방식

본 수업은 대학원 세미나 수업이므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발제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수업의 전체 구성은 주로 2-3주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동일한 쟁점의 첫주에는 읽기와 강의 위주로, 그리고 이후의 수업에서는 동일한 쟁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예에 대한 학생들의 짧은 발제와 토론 위주로 진행된다. 그리고 마지막 두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기말 발제와 함께 수업을 총정리하는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평가 기준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수업의 특성상 외부 강사의 특강이나 지원 프로그램 방문도 계획 중에 있으나 자세한 계획은 학생들과 논의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교재: 수업교재 읽기 팩키지 (주요 미술잡지에 등장하는 작가 지원프로그램이나 기타 관련 아티클들이 포함되어 있다.) 팩키지에는 이외에도 영문으로 된 기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부교재:

수업

수업이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들간의 연계를 위하여 연습, 복습을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강의 이외에 토론, 읽기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업 전체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평소 수업의 출결석,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 태도가 중시된다.

011년 가을

## 한예종 전문사 수업

# 아방가르드의 딜레마와 작가 육성: 작가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현대예술의 쟁점들

### 수업의 전체 구성

1-3 소개

2-9.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역할, 이론적 배경, 그리고 대표적인 유형들  
(5가지 쟁점들에 관하여)

10-13. 국내 주요 작가지원프로그램의 유형과 역사

14-15. 학생들의 발제와 토론

발제뿐 아니라 유형별로 등장한 작가 지원 프로그램 비교를 토론화.

비교의 쟁점들은 선정의 기준, 현대미술계와의 연관성, 전시 기능 vs. 기금 마련, 예술가들의 독자성과 레지던시 프로그램. 다른 기관들과의 차별성, 지역사회와의 연대, 그리고 교육 비교 후에 평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결론을 도출

### 1. 작가 지원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1: 아방가르드 예술의 시작과 20세기

왜 현대미술에서 중요한가? 현대미술에서 등장한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것 들로는 무엇이 있는가?

1. 어떻게 작가 지원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가? 이에 대한 보다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게 된 것은 왜 인가? (아방가르드 예술의 시작, 인상파와 뒤샹이후 오브제 이야기)

-아방가르드의 정의와 이전 미술과의 차이점--즉 어떻게 초기 아방가르드가 이전의 예술과는 다른 경제적, 사회적 여건 속에서 발전되었는지...(서구의 예)

- 19세기 중반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원조들 1 (기관을 통한 형태, 전시. 심지어 낙서자 전시, 표상)--실험이 가능해짐. 살롱을 통하여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예술적 기관에 봉사하는 예술로부터의 해방.

- 20세기 초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원조들 2 (아방가르드 서클, 작가 콜렉티브, 그리고 후원자와 화상 (실험은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와 경로를 필요로함. 그리고 재원을 필요로 함.) 보다 다양하고 넓어진 예술의 영역과 새로운 화상의 등장. 하지만 그 모호한 기준에 대하여 항거. 과연 예술이 무엇인가의 문제?

- 1960년대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원조들 3 (대안공간의 등장, 그리고 작가 공동체의 등장, 특히 작가들 스스로가 운영) 아방가르드 예술을 대표한다는 미술관이나 미술비평에 항거하는 작가들

- 1990년대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현재 4 (창작공간, 스튜디오 지급, 국제 레지던시, 지역 예술공동체) 즉 작가 지원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체계화되며 국제화되고 동시에 지역과 연관을 맺게 되는 현상

### 쟁점 (읽기)

결국 잘 살펴보면 작가 지원프로그램은 작가들로 하여금 1) 필요한 재원을 제공해주면서도 2) 예술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시기에 가장 적절한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만들어지고 선택되어지며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초기 기관을 힘을 얻은 낙선자들의

전시회(인상파)나 재력이 있는 후원가(모순되게도 뒤상)와 화상(입체파)이 존재하는 한 예술은 실제 세계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여겨졌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문제가 쟁점화되고 논의되기 시작한 1960-70년대에 서구 사회에서 대안공간이 생겨나고 특히 영미를 중심으로 예술후원 기금과 정책이 확립되면서 각종 작가 지원프로그램과 기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었다.

1) 부르디유는 일종의 예술과 문화계의 총체적인 시스템을 하비투스라고 부른다. 이것은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자본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런데 만약 후자가 자본주의하에서 예술이 존재하는 모순적인 양태에 관한 것이라면 전자는 그것에 저항하는 방식을 함께 가리킨다. 부르디유의 이론은 무엇보다도 순수예술이라는 이름하에 등장하는 예술이 얼마나 무형적인 지식 체계, 즉 상징적인 자본의 영향하에 조정되어 왔는지를 설명한다. 순수예술의 순수한 창의성 독창성이 금전적인 수치로 환원되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람직한 작가 지원프로그램은 결국 이와 같이 유형과 무형의 자본을 이용하고 이에 맞써 보다 독립적(미학적, 사회적, 이념적, 그리고 경제적)이고 새로운 예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특정한 형태의 작가 지원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는 그리고 그 결과로 새로운 형태나 경향의 예술이 가능해지게 된다.

2) 한국의 경우 초기에 서구에서 순수예술의 개념이 들어온 후에 프랑스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 마저도 정부기관의 기획하에 열린 전시회들을 통하여 새로운 예술과 작가들이 지원받았다. 또한 읽으면서 어떻게 실제 조선의 부유층이 예술을 소비하는 양태가 기관전시회와 달랐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 3) 다양한 레지던시 항목 소개

숙제: 부르디유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읽고 오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상징적인 문화자본에 해당하는 예들 적어오기. 그리고 그와 같은 문화, 혹은 상징자본으로부터 과연 작가 지원프로그램이 어떻게 작가를 지켜줄 수 있는지 그 긍정적인 예와 한계점에 대하여 생각해오기

### 2-3. 작가 지원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2: 작가 지원프로그램은 동시대의 미술, 혹은 앞서가는 새로운 미술을 장려해야 한다? (근거의 기준은 예술의 우수성, 비평성?)

- 19세기 중반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원조들 1 (기관을 통한 형태, 전시. 심지어 낙서자 전시, 표상)--실험이 가능해짐. 라익스 아카데미. 주로 젊은 작가 표상과 물리적인 기반 제공
- 작가 지원프로그램이 비평가들이나 예술계에서 성공하는 열쇠로 여겨지는 상황. 그리고 각종 비평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신설 (살롱에서 엘리트 그룹으로--화이트 큐브로--미술관으로)

### 쟁점(읽기)

과연 어떤 예술을 장려해야 하는가? 과연 예술계에서 우수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뒤상의 예를 보면 어떠한가? 객관적인 기준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가? 혹은 작가가 키워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젊은 작가가 지닌 가능성과 창의성에 대한 잣대는 무엇인가? 과연 작가 지원

프로그램에서 나이제한이란 의미가 있는가?

부르디유의 예를 통해서 생각해보자. 과연 비평적 기준이나 작가의 가능성이 어떻게 접혀질 수 있는가?

한국의 예는 어떠한가? 세대간 논의를 살펴보자. 혹은 최근 젊은 작가 지원프로그램이 왕성하게 열리고 있는 가운데 중년, 소위 낡은 세대 작가들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생겨났다가 중단되었다.

영문으로 된 글에서 결국 작가들의 창작성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구를 지원하는가?

왜 지원하는가?

어떻게 지원하는가?

과연 가장 적합한 지원군인가? 그들이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가?

- 특별기획, 신세대 작가들, 박신의, 젊은 작가 지원프로그램, 월간미술, 2006년 6월
- 김형숙, 시각예술 교육할 수 있을까?, 월간미술, 2007년 11월
- 박신의 서진석 유진상, "ROUND TABLE: 젊은 작가 프로모션, 이대로 좋은가?," 아트인컬처, 2005년 10월

4-5. 작가 지원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3: 작가 지원프로그램은 작가들간의 교류와 커뮤니티를 위하여 존재한다.

-작가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작가들이 교류하게 되는 상황: 특히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 예술이 덜 발달한 사회에서는 실제 다목적의 역할. 즉 소규모 작가 운동도 하고 전시장의 역할도 한다.

-주요한 예들: 아프리카, 중국, 남아시아, 호주. 작가 지원프로그램이 다기능을 하면서 일종의 특정한 예술적 운동을 형성하는 경우.

=역사적인 예들: 작가들의 소규모 운동와 대안공간

-읽기: 초기 작가의 스튜디오에서부터 벗어나서 대안 공간이 생겨나게 되는 계기

대안 공간의 딜레마 등등

- Robin Rausch, "The MacDowells and Their Legacy," in *A Place for the Arts: The MacDowell Colony 1907-2007* (Hanover and London: The MacDowell Colony and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2007), pp. 50-79.
- Thema Golden with Glenn Lignon. "With Our Faces to the Rising Sun," in *What Makes a Great Exhibition* (Philadelphia, PA: Philadelphia Exhibition Initiative, 2006)
- 심상용, "PROPOSAL 하나의 제안 : 대안 조형문화공동체," 아트인컬처, 2001년 4월
- 지역 대안공간의 발언들; - 박찬용 : 진정한 대안은 지역미술에 있다(스톤 앤 워터); - 민운기 : 스페이스 빔, '구월동 작가'들의 새로운 실험; - 김성연 : 부산미술과 대안공간 '반디'
- 미술과 담론, 제 19호 (2005); [http://www.artndiscourse.net/no19/no19\\_contents.php](http://www.artndiscourse.net/no19/no19_contents.php)

과제: 작가지원프로그램의 전통적인 역할과 이를 수행하는 예들을 들기

### 6-7. 작가 지원프로그램과 쟁점 1: 대안공간과 비평적 예술의 탄생

-어떻게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 특정한 미술운동, 특히 비평적인 미술운동과 연관되면서 등장하였는지 보다 명확한 예들을 역사적으로 살피는 시간

-역사적인 예들: 작가들의 콜렉티브, 공공미술

-읽기: 1980년대 작가들의 콜렉티브

-주요한 예들: 특히 이와 같은 비평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한 작가들의 콜렉티브 정신을 바탕으로 작가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할 뿐 아니라 커뮤니티에 봉사하고 참여하는 예술을 발전시키게 되는 경위/안양 프로젝트/인계시장 소개

- Martin Beck, "Alternative: Space," in *Alternative Art New York 1965-85*, ed. by Julie Ault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2)
- Julie Ault, "A Chronology of Selective Alternative Structures, Spaces, Artists' Groups, and Organizations in New York City, 1965-85," in *Alternative Art New York 1965-85*, ed. by Julie Ault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2)
- Doug Ashford, "An Artwork is a Person," and Sabrina Locks, "Tracking Aids Timeline," in *Show and Tell: A Chronicle of Group Material*, ed. by Julie Ault (London: Four Corner Books, 2010)

### 8. 작가 지원프로그램과 쟁점 2: 문화적 자본(?)과 도시, 혹은 지역

-어떻게 작가 지원프로그램, 혹은 현대예술의 발전을 특정한 계층의 등장. 도시 개발과 연관시켜서 살피는 시간

-주요한 예들: 외국의 작가 지원프로그램과 도시개발에 대한 예들

이론적인 쟁점: 상당히 많은 이론들, 선택중. 과연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 양은희, "SPECIAL FEATURE ART ISSUE 4, WORLD SITE 8: ②Alternative Space: New York 페스티벌에서 시작한 대안공간, 이제 미술관으로," 아트인컬처, 2005년 3월
- Richard Florida, "Building the Creative Community," in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283-314.
- 김윤경, "SPECIAL FEATURE ART ISSUE 4, WORLD SITE 8: ①Public Art, Ohtawara 지역공동체가 일구어낸 건강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아트인컬처, 2005년 3월

### 9. 작가 지원프로그램과 쟁점 3: 국제교류의 최전선(?)

-어떻게 작가 지원프로그램과 연관된 국가적인 기관이 생겨나고 이러한 기관들의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

-역사적인 예들: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네트워크

-이론: 긍정적인 예. 혹은 부정적인 예

-작가 지원 프로그램과 전지구화된 예술계의 상황

- 프리즘: 아트 레지던시, 국제 컨퍼런스 참관기 백기영, 아트인컬처, 2010년 11월

과제: 작가 지원프로그램이 주로 대안적인 예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과정 및 실제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확장된 역할과 쟁점

## 10. 1990년대 국내 작가지원 프로그램의 시작

-1) 미술계 내부의 변화, 2) 미술계 외부의 경제적인 요인들, 3) 작업 환경의 변화

썸지. 초기 작가 지원프로그램들/영향력과 문제점들:

1990년대 초 전체 미술계의 구도가 어떠하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작가 지원프로그램에 등장하였는지.

그렇다면 작가 지원프로그램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예술가들에 대하여, 미술의 새로운 형식의 발전에 대하여, 전시 기관들에 대하여...

이에 버금가는 유사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기관은 없었는지? 혹은 유사한 운동을 벌인 미술계의 소규모 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

-대표적인 기관들 학생 리서치: 썸지

-토론: 2-3주 읽기와 비교. 서구의 예들과의 비교. 즉 작가 소규모 운동이나 작가의 컬렉티브와 작가 지원 프로그램과의 관계

● 김경아, "INTERVIEW 김홍희 썸지스페이스 관장," 아트인컬처, 2000년 7월

● 황세준, "프리즘: 대안공간 풀의 풍경: 1999~오늘," 아트인컬처, 2006년 1월

## 11. 국내 작가지원 프로그램의 특징: 국공립 프로그램

-국공립 위주, 국공립 미술제의 등장, 국공립 작가 지원프로그램과 국립미술관

국공립 기관은 후발 주자. 그렇다면 왜 어떠한 점을 보고 등장하기 시작하였는가? 이제까지 국공립 기관들이 해온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무엇들이 있었는가?

국공립 기관이 하게 된 새로운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즉 국 공립이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예술가들에 대하여, 전시기획자들에 대하여--균형적인 발전, 도시 개발 발전

-대표적인 기관들 학생 리서치: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읽기: 유럽과 미국의 예들. 즉 공립 지원과 사립 지원의 차이

● 집중 연구 Battle of Residency, 1) Residency Big 3 경기창작센터+인천아트플랫폼+서울시창작공간\_김수영; 2) Report 한국 레지던시, 어디까지 왔나?\_김윤환; 3) Residency all Guide 109\_호경윤, 아트인컬처, 2010년 6월

● David Sawers, "The Economic Arguments for Government Support of the Arts," in *Should the Taxpayer Support the Arts* (London: IFA, 1993)

● 양지연, 예술공공정책에 대한 찬반논쟁, 월간미술, 2002년 11월

## 12. 국내 작가 지원 프로그램과 동아시아 미술의 국제화

-작가 지원프로그램과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확대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또 다른 역할을 궁극적으로 네트워크의 형성, 즉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에 있어서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대표적인 기관들 학생 리서치. 스타 큐레이터이자 작가 지원자들의 등장: 갤러리 루프  
어떠한 기관들에 한국 작가들이 추천되어서 나가는지 관찰

-토론: 9주 읽기와 연관

- 리포트인사이드: 새로운 아시아 미술, 글로벌 네트워크를 향하여\_서진석, 아트인컬처, 2010년 5월

### 13. 국내 작가 지원 프로그램과 공/사적인 영역의 경계 허물기

-작가 지원프로그램을 상업화랑도 하게 되는 경위. 화랑의 구조. 1차/2차 화랑. 화랑의 이제까지의 역할에서 전시. 판매. 그런데 아예 작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함.

-기업이나 상업화랑과 작가 지원프로그램, 기금의 탄생

-대표적인 예들 학생 리서치 (상업화랑과 작가 지원의 기능, 기업의 작가 지원프로그램)

-읽기: 기업의 예술장려의 예들

- 특집: 미술시장의 주역과 대안의 공간들\_김성연, 아트인컬처, 2008년 3월
- 특별 기획 Art Management 5社5色: 1. Doosan Gallery\_작가 지원, 레지던시에서 미술상까지, 아트인컬처, 2010년 11월

과제:국내 작가 지원프로그램들 중에서 택한 쟁점들과 연관되는 예들 조사

### 14-15. 학생발표와 토론: 우리가 만든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평가기준

-학생들 발제

-5개의 쟁점을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대하여 토론

- 작가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이제까지의 기준들: 새로운 예술을 장려해야 한다. (지나친 비평과의 결탁. 보수적인 작가 지원체제)
- 작가 지원프로그램은 작가들간의 커뮤니티 형성: 진심으로 형성되고 있는가?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기간, 성격에 따라서 가능한지 아닌지 관찰.
- 작가 지원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예술 형성: 과연 가능한가? 어떠한 면에서 작가 지원프로그램이 그와 같은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ngo적인 성격. 교육. 하지만 과연 작가들이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쉬운가?
- 작가 지원프로그램과 도시 개발: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도시 개발에 대한 작가들의 역할이 어떻게 인식되어져오고 있는가? 다양한 역할들에 대하여 관찰
- 작가 지원프로그램과 국제교류: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국제교류의 장. 특히 내부적인 미술계의 자생력이 약한 경우에 외국 큐레이터, 작가들과의 교류는 필수. 하지만 이러한 것들의 문제점은 없는가? 실은 국제교류의 길을 단일화하는 문제들.

- Who defines conflict and to what extent does it fall prey to Western narratives (e.g. development, humanitarian assistance) that justify intervention?

- Can there be standards for visiting artists' relationships with host communities?

- What happens after the residency is over? Does an 'art for art sake' approach work in 'conflict areas'?
- Mobility: Who has the permission to go where in the world?
- Can programming or accepting an art residency be a political act?
- What can we learn from mobile and site specific residency models as tactical approach to space precarity?